



■ 연구원 소식

○ 디아스포라 영상택배 종료

코로나 19로 집합 대면 사업을 진행할수 없어 영상물로 진행한 디아스포라 특집 강연을 지난 주로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주제로 연구원 회원들에게 영상택배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될 영상택배 시즌2를 기대해주세요.

○ 강영식 이사 자녀 혼례

우리 연구원 강영식 이사(남북교류지원협회 회장)의 큰아들 강희태 군(사단법인 희망래일 근무)이 지난 9월 5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평화의 공원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당초 4월 11일에 예정되었던 혼인을 코로나 19로 인해 가을로 옮겼으나 수도권에 확산세가 지속되자 온라인으로 식을 생중계하고 현장에는 일가친척으로 최소화한 하객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강영식 이사님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 전해드립니다.

○ 김우철 평의원 부친상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 연구원 태동의 주역이자 연구원 평의원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국사편찬위원회 김우철 편사부장이 지난 9월 6일 밤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코로나 19로 많은 조문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연구원에서는 변주승 이사와 이정욱 운영위원이 빈소를 방문했고 김진소 고문, 변주승 이사, 한명수 평의원이 논산시에 위치한 장지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커다란 슬픔에 잠긴 김우철 평의원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되 마고 Les Deux Magot 카페

- 카페 산책 4 -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학연구원 전임 연구원)



되 마고 카페의 도로변 풍경,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차를 마시고 있다.

파리 문화의 일면을 카페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파리 인들은 즐겨 카페를 찾는다. 카페의 유명세로 인해 우리나라의 여행자들도 카페 순례자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지난 호에서는 이광주 교수의 플로르 카페를 소개한 바 있다.

이교수의 글이 최근의 카페 경치라고 한다면, 「피터 현의 고품격 세계여행」의 ‘파리의 카페들’은 1950년대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는 과거의 카페 풍경이라 흥미롭고 구미가 땡겨서 필자의 경험과 섞어보고자 한다.

생 제르맹로 170번지에 위치한 되 마고는 1885년에 문을 열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여행 자유화가 되기 훨씬 오래전인 1950년도 중반에 프랑스에 유학 갔던 현선생(피터 현)은 파리 이곳 카페를 자주 갔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생 제르맹 데 프레 지역과 플로르와 되 마고 카페에 대해 그의 체험을 곁들여 소상히 밝혔다.

그에 따르면 되 마고에 들어온 사람이 양복 윗도리를 벗었다고 하여 쫓겨날 만큼 예의를 갖추어야하는 곳이었다고 한다. 지금이야 많이 변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도 카페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중후한 맛이 있다.

파리의 카페는 1세기 -19세기부터 미술과 문학의 옥토였다. 사실 인상파도 카페에서 시작된 미술 사조(思潮)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소문의 진원지가 되었다. 이를 잘 말해주는 프랑스의 작가 레옹 폴 파르그의 글을 피터 현이 소개했는데, 이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그날 프랑스 국무회의, 권투시합, 문학상의 그랑프리 수상자, 명사 경연대회 등 갖가지 모임과 경연 소식은 생 제르맹 카페에 가야 제일 먼저 듣는다. 이곳 카페 손님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과 예술에 대하여 가장 최신뉴스에 접하고 실제 사건은 물론 진짜내막을 직접 만날 수 있다. 되 마고 카페는 파리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곳이다.”

이와 같이 카페는 파리지앵들의 관심을 기울이는 곳인데, 이는 과거 파리 지성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곳이라 그들에게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이곳에 들렀던 아니 살다시피 했던 수많은 지성인 예술가 문학가 - 실존주의자 장 폴 사르트르, 알베르 까뮈 그리고 에밀 졸라, 빅토르 위고, 발자크 등이 있고 프랑스 시단(詩壇) 상징주의 선구자 폴 베를렌느, 아르튀르 랭보 등이 이곳에서 미학을 토론했다. 또한 프랑스인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헤밍웨이(미국인 이지만 이곳을 사랑했다.), 오스카 와일드(아일랜드), 피카소(스페인) 등 - 들이 카페의 분위기를 주도하였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어도 그들의 지적 흔적과 훈점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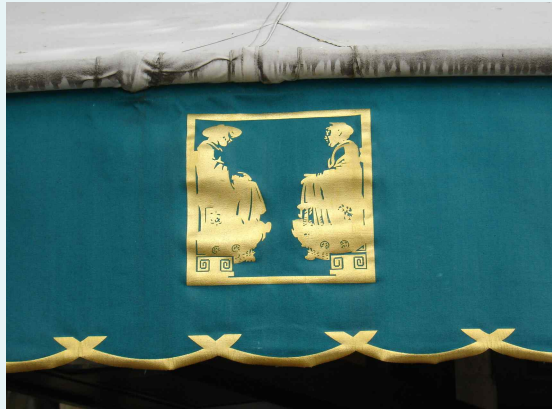
필자도 여러 차례 이곳을 기웃거렸다. 되 마고가 두 중국 상인에서 유래하였고 그 중국인 조각이 있다고 하였는데, 카페 바깥에서는 아무리 보아도 찾을 수 가없었다. 그래서 정중한 차림의 종업원(이들을 무슈라고 한다)에게 다가가서 정중히 물었다. 그 조각품은 카페 안에 있다고 한다. 찾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비쌀거라는 생각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 서만 찾았는데, 안에 있다고 하니 참~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었다.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조심스레 물었더니 무슈는 쾌히 OK한다.



되 마고 카페 내부 풍경

들어가 보니 분위기가 조용하면서도 여유가 있어 보인다. 지인과 같이 갔었다면 분위기에 도취되어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대화 삼매경에 빠질 것 같다. 잠시이긴 하지만 카페의 분위기를 접하니, 「생 제르맹 데 프레 카페들이 프랑스의 현대 문학과 미술 발달에 가치 있는 역할을 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파리 카페들은 프랑스에 머물던 적지 않은 미국과 영국 및 다른 서구 작가들의 문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파리에 가서 특히 생 제르맹 데 프레의 카페들을 순례하며 유래를 음미하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다. 카페는 이 도시의 리듬과 맥박을 느끼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주변 거리의 매력적인 분위기에 젖게 해 준다.」며, 자신은 언제나 파리에 가면 도착하기가 무섭게 되 마고 카페로 달려간다는 피터 현의 말에 동감이 된다.



바깥에 그려 놓은 두 중국인 그림



골목 안쪽에서 본 되 마고 카페 외관

■ 천년 암자에 오르다

<금오산 약사암> 다섯 번째 이야기 “현월봉보다 약사암”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할딱고개를 지나도 결코 만만치 않은 산행이니, 숨 가쁜 오르막은 철타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되다시피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철타 부근에 이르러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현상을 직접 느껴본다는 점이다. 한여름에도 이 부근을 통과할 즈음이면 이상하게도 더위를 그다지 느끼기가 어렵다. 초가을이 되면 실제로 추위마저 느낀다.

철타를 지나면서부터는 길이 다소 수월해진다. 째짤이 암벽으로 이루어진 봉우리들이 연달아 나타나 눈이 즐거워진다. 어느 곁에 하늘이 열리면서 오르막이 끝나가는 곳에 약사암藥師庵의 일주문 역할을 하는 ‘동국제일문東國第一門’이 보인다. 오른쪽으로 100m 즈음에 금오산의 정상인 현월봉懸月峰이 자리를 잡았다. 멀리서 보면 초생달 하나가 애처로이 걸린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얻은 이름인데, 실제로 그런 낭만을 느끼기는 당최 어렵다.

현월봉은 실망스런 모습이다. 바로 옆으로 무선기지국과 중계탑이 봉우리보다 우뚝 솟았을 뿐 아니라, 이들을 보호한답시고 둘러친 강판 울타리가 아주 몰인정하다. 최정상이 주는 시원한 전망을 내심 기대하면 더욱 한숨이 나오는 살풍경이다. 표석 하나만 웅덩그렇하다. 금오산의 최정상이라는 명분 하나로 위안을 삼아야 한다.

현월봉 아래 약사암은 신라 시대에 창건된 암자라고 전해 온다. 전설에 의하면, 의상대사가 이곳에서 득도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리산에 있던 석불 세 구軀가운데 한 구를 모셔온 곳이라고도 한다. 그 석불은 지금 보이질 않는다.

역시 현월봉보다는 약사암이니, 동국제일문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야~!’하는 감탄을 감출 수 없다. 동국제일문 자체는 일반 사찰의 일주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주변 풍광이 더 없이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까닭이다. 그래서 감히 동국제일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나 보다.



동국제일문 | 모르면 몰라도 내리막길 앞을 버티고 선 일주문은 우리나라에 이곳밖에 없다. 그래서 일까? 기둥 사이로 내려다 보이는 속세가 더욱 아득하다.

일주문 기둥 사이로 흘러내린 암벽을 통해 약사암의 지붕이 먼저 보이고 그 뒤에 구미시 일부가 희미하게 내려다보인다. 등반객들에게 '통천문'이라 불리는 협곡사이로 드러나는 기막힌 풍광이다. 우리나라 사찰이나 암자 가운데 이렇게 세상을 내려다보는 일주문이 또 어디 있을까?

본래 일주문은 사찰이나 암자의 전면에서 서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곳의 일주문은 오히려 뒤로 올라갔다. 앞쪽에 마땅한 부지가 없어 마련한 방편치고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다. 상식을 깬 구도가 도리어 약사암의 신비로움을 보태 주는 형국이 되었다. 그 신비로움은 다시 범종각이 이어받는다.

좁다란 협곡을 비집으며 돌계단이 누웠고 그 끝 지점부터 암자까지는 다시 나무계단이 뒤를 이었다. 계단에서 협곡의 높이는 짐작조차 되질 않는다. 그리하여 약사암이란 별세계로 접어드는 설렘을 불러온다. 그 설렘은 다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도록 하는 묘한 힘을 지녔다.

약사암 경내는 크게 세 공간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제일 위쪽의 터는 삼성각과 약사암이 차지했다. 전면에서 마주 보아 왼쪽이 삼성각이다. 삼성각은 통천문과 일주문을 제대로 등에 졌다. 오른쪽은 약사암이다. 삼성각 뒤로 통천문이 아찔한 벼랑으로 솟았다. 하늘로 통한다는 통천문이란 이름이 실감나는 순간이다. 문득 겨드랑이가 가려워진다. 때마침 날 개라도 돌아나 푸른 하늘로 높이 날아가려나?

약사암은 삼성각보다 더 큰 암벽을 의지 삼았으니 그 크기에서 무한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 도선굴의 암질과 동일한, 아주 단단해서 쉽사리 깨지지 않는 밀도 높은 돌이다. 그런 탓에 풀과 나무들이 거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렇게 맑고 역동적인 에너지는 이곳으로 약사암을 불러왔다. 눈 밝은 선지자 한 분이 눈 빠르게 터를 고른 덕분이다.

지난날 삼성각과 약사암은 천연의 암벽 위에 제각각 서 있던, 따로 뚝 떨어진 건물이었다. 험준한 암벽 사이에 만든 샛길로 두 건물 사이를 오가는 형편이었다. 지금은 두 건물 사이의 낭떠러지에 교묘하게 종무소 건물을 현대식으로 얹힌 다음 지붕에 해당하는 평지를 조성하였다. 그 결과, 두 건물은 이제 평평한 종무소의 지붕 위쪽에 함께 앉게 되었고 발아래에 숨은 종무소를 쉽게 인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옛날을 되살려 본다면, 삼성각과 약사암은 필시 하늘에서 살포시 내려앉은 지금보다 더욱 신비한 모습이었으리라.

약사암의 맞은편 봉우리에는 석탑이 정갈한데, 다소 밋밋한 봉우리에 탑을 쌓아 변화를 준 것이다. 봉우리는 비록 수목으로 몸을 감쌌지만, 바위로 이루어진 몸매는 미처 다 감추질 못했다. 시간이 허락하면 현월봉을 통해 건너가 약사암의 전경을 한눈으로 조망할 수 있다.



종각 | 선계의 종각이 아마도 이런 모습이리라. 약사암의 제일경으로 꼽을 만하니 눈 내린 겨울날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다.

약사암의 두 번째 공간은 바로 종각이 설치된 좌전방의 작은 봉우리다. 종각 또한 절묘하게 봉우리 꼭대기에 자리를 잡았으니, 선계의 종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꿈결 같은 풍경을 자아낸다. 종각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설치된 구름다리를 건너야 한다. 그러나 평소에는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출입을 금하고 있다.

약사암의 종각은 동국제일문과 함께 바라만 보아도 행복한 자태다. 더욱이 종각은 저만치 홀로 서서 내로라하며 세상의 머리 위에 군림하고 있지 않은가? 종각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정녕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불성佛性を 일깨우리라. 숲 속의 들짐승과 날짐승들도, 낙동강의 물고기들까지 그 장엄한 울림에 머리를 조아리리라. 이처럼 통쾌하게 세상을 내려다보는 종각 또한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하늘에서 살포시 내려앉은 듯한 자태에 겨울날의 눈 덮인 경치는 거의 환상에 가깝다.

약사암의 마지막 공간은 요사채가 차지했다. 제일 낮은 공간에 건물 자체도 가장 격이 떨어지는 요사채다. 따라서 요사채까지도 예스런 모습을 갖추었으면 하는 욕심이 슬그머니인다. 요사채의 장독대 뒤편으로는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설치했던 철제 출렁다리가 아직도 묵은 자취로 남았다. 지난날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출렁다리다.

다음 주는 <금오산 약사암> 여섯 번째 이야기 “용돌이 바위와 마애보살입상”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